

# 최근에 신축된 영동남부지역 농촌주택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idential Space of Recent Farmhouses in the Southern Part of Yongdong Area

최 장 순\*      이 상 범\*\*      최 찬 환\*\*\*  
Choi, Jangsoon   Lee, Sangbeom   Choi, Chanhwan

###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analysis of how the residential space of the farmhouses which were recently built by farmer's free intent with the help of a person who is related with architecture was changed. So that this study is aimed at grasping how the spatial structure of recent farmhouses in the southern part of Yongdong area continues to be kept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Also it includes grasping the trend of spatial transformation and constancy about the recent farmhouses through the analysis of living elements as well as the extension, renewal and rehabilitation of residential space.

키워드 : 주거공간, 최근의 농촌주택, 영동남부지역

Keywords : Residential Space, Recent Farmhouse, Southern Part of Yongdong Area

### 1. 서론

#### 1.1 연구목적

최근 새로이 건립되고 있는 농촌주택의 경향은 한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주택이 설계되고 축조되는 경우이다. 이런 주택들은 건축주인 농민의 사고가 직·간접적으로 주택의 신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의 여러 가지 行態를 크게 구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행정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농민의 경제력 축적에 의해 자유의사로 만들어진 농촌주택이

도시주거문화의 유입과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주거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신축을 비롯한 증·개축 및 개·보수를 매개로 한 주거공간을 조사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설계 의뢰 행태

설계 행태	농가수	%
본인 직접 설계	3	10.35
건축설계관계인 + 자신의 의견	6	20.69
주택건축업자 + 자신의 의견	11	37.93
표준설계도서 + 자신의 의견	9	31.03
계	29	100

#### 1.2 연구방법

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태백산맥 동쪽에 위치한 강릉, 동해, 삼척지방으로 영동남부지역이다. 대상주택은 '85년도 이후 최근까지 새로이 축조된 농촌주택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실측,

\* 정회원, 동해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 정회원,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공학박사



그림 1. 대상농가 위치도

촬영, 관찰, 면담을 통해 주택의 물리적 현황-주로 배치와 평면-을 파악하여 축조 당시와 비교하여 보고, 이에 따른 공간사용방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작업을 통하여 영동남부지역에 최근 새로이 신축된 농촌주택의 주거공간에 대한 변화를 파악 분석한 후에 결론을 제시코자 하였다.

표 2. 신축년도

신축년도	~90	92	94	96	98	00	계
농가수	2	5	7	5	7	3	29
%	6.89	17.24	24.14	17.24	24.14	10.35	100

## 2. 조사대상 농촌주택의 건축적 사항

### 2.1 면적

실제로 주택이 놓여 있는 대지면적은 평균 약 129평으로 농민들 스스로 대답한 대지면적인 평균 약 183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이가 생긴 이유는 조사자들

은 실제로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대지면적을 산정한 것인데 반하여, 농민들은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와 텃밭까지 포함 하던가 또는 건물이 앉아 있는 전체 필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이라고 답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층 바닥면적은 평균 97.58㎡(29.52평)로 건축 신고 면적<sup>2)</sup> 이하에 근접한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로 농촌주택의 다락층(실제는 2층)과 지하층(실제는 1층)에 대해 엄격하게 건축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농가당 실제 평균면적은 약 36평에 이른다. 또한 사용검사 이후 살림채 부분의 증축 면적은 평균 3.06평으로 살림채 전체 평균면적은 32.58평이나 다락층과 지하층 부분을 합하여 계산한다면 39평 정도이다.

표 3. 대지면적 및 바닥면적 단위(평)

대지면적	바닥면적						합계
	살림채			부속사			
	당초	증축	계	당초	증축	계	
129.85 (183.25)	29.52 [6.56]	3.06 [0.17]	32.58 [6.73]	0.38	10.03	10.41	42.99 [6.73]

\* ( )안은 거주자가 생각하는 면적이고, [ ]안은 지하층 또는 다락층의 면적임.

부속사의 증축 면적은 전체농가 평균으로 계산하면 10.41평으로 부속사 부분에 대한 증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살림채와 부속사의 합계면적은 43평 정도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나타내는 건폐율은 살림채만을 포함시켰을 경우 평균 약 25%이고, 부속사 면적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평균 약 33%로 나타나 과거에 조사된 것<sup>3)</sup>보다는

- 2) 최찬환·전경배, 건축법규해설, 세진사, 2000, 107-108쪽. 현행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3) 박경옥·유복희, 주민 자유의사에 의하여 최근 신축된 농가주택의 건축적 특성 및 생활에 관한 연

다소 높다. 이와 같은 이유는 살림채 면적에서 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지면적과 실제의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지면적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2.2 向

살림채의 향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 등 남향 위주가 전체의 51.7%이고, 동향, 동남향 등 동향 위주는 24.1%에 이며, 서향, 서북향 등 서향 위주는 20.7%에 이른다. 이와 같이 남향 위주의 향을 선호하는 이유로 여름철의 통풍, 겨울의 채광, 관습상 북향을 회피하는 경향 때문이다.

표 4. 살림채의 향

구분	남향계			동향계			서향계			북향계		
	S	SW	SE	E	ES	EN	W	WN	WS	N	NE	NW
농가수	5	7	3	5	2		5	1		1		
%	17.2	24.1	10.3	17.2	6.9		17.2	3.5		3.5		
농가수	15			7			6			1		
%	51.7			24.1			20.7			3.5		

## 2.3 외관

평슬래브 지붕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슬래브 구조는 바닥이 편평하여 이곳에다 농작물이나 빨래 등 건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장독대나 가스통 등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평슬래브 위에는 태양열 집열판이나 위성수신안테나를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설치 후 유지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박공지붕 등 경사지붕 처리를 한 경우는 전통 목구조로 지을 경우라든지 또는 이 지역의 재래농촌주택의 대표적 유형인 一자형과 ㄱ자형의 형태로 지을 경우에 합각지붕이나 박공지붕

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붕의 형태

구분	평슬래브	박공	합각	모임	계
농가수	19	5	3	2	29
%	65.52	17.24	10.34	6.90	100

## 3. 주거공간

### 3.1 옥외생활공간

#### 1) 담과 대문

시멘트블록과 적벽돌로 된 담을 설치한 농가는 41.4%(12/29)이고, 대지 바깥에서 대지 안이 보이도록 적벽돌 기둥을 세우고 철제 또는 기성 콘크리트 휨스를 설치한 농가는 10.3%(3/29)이며, 생울로 담을 대신하도록 한 농가는 10.3%이다. 나머지 농가들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석축을 쌓거나 대지 주위에 관상수나 유실수를 심어 대지 경계를 구분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농가의 절반 정도가 인공적 산물인 블록이라든지 벽돌 또는 기성 제품을 이용하여 담을 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또한 설문조사 시 담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들도 대다수 경제적 여건이 허용된다면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앞으로 농가의 외부환경요소 중 담은 시멘트블록 또는 벽돌담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갈 것이다.

대문을 설치한 농가는 13.8%(4/29)에 불과하나, 장래 대문을 달 의향을 가지고 대문 기둥을 설치한 농가까지 합하면 37.9%(11/29)에 이른다. 대문을 설치한 농가도 며칠씩 집을 비우지 않는 한 항상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은 당초의 계획된 의도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문을 설치하였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여 보니 농기계가 드나드는 데에 불편하므로 항상 거의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위치에 대문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바깥출입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출입하기 위하여 72.7%(8/11)로 가장 많았다.

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1, 76쪽에 의하면 견폐율은 10~20%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장래 대문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 여건이 허용된다면 대문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표 6. 담의 구성 재료

구분	시멘트블록	적벽돌	철제펜스	기성콘크리트펜스	생울
농가수	10	2	2	1	3
%	34.48	6.90	6.90	3.45	10.34

2) 마당

마당은 과거와는 달리 콘크리트 포장인 48.3%(14/29), 보도블록과 자갈 포장인 각각 6.9%(2/29), 잔디 植栽가 17.2%(5/29), 철도 枕木으로 포장한 경우가 3.4%(1/29), 맨홀바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17.2%(5/29)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맨홀바닥에서 콘크리트나 보도블록, 잔디, 자갈 등의 바닥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콘크리트나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바닥 위에서 타작을 하면 곡식이 으깨어지거나 밟아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운기 등 농기계의 보급으로 마당에 농기계를 보관하던가 또는 농기계창고에 보관코자 할 때 농기계의 출입에 편리할 뿐더러 마당이 더럽혀지지 않고, 마당에 곡식을

말린다는지 할 때 맨홀바닥보다는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곡물 타작을 대부분 과거와 달리 마당에서 하기보다는 벼의 경우 논에서 바로 콤바인으로 주행하면서 예취, 탈곡, 정선작업을 하여 바로 수매하기 때문에, 발작물인 경우 밭에서 건조해서 타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마당의 포장 재료

구분	콘크리트	보도블록	자갈	철도침목	잔디	맨홀바닥
농가수	14	2	2	1	5	5
%	48.27	6.90	6.90	3.45	17.24	17.24

3.2 가족공동생활공간

1) 현관

현관은 주택 내외의 출입을 위한 공간으로 이를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외부노출형으로 벽체 구획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 돌출한 지붕 밑에 뜰을 설치하여 단순히 영역만을 나타내는 형태(13.8%, 4/29)이고, 둘째는, 내부노출형으로 거실의 한쪽에 거실 바닥과의 段差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분하는 형태(3.4%, 1/29)이며, 셋째는 외부돌출형으로 외부에 돌출시켜 현관문을 설치하고 내부는 두썩유리미서기문 등으로 구획하여 거실 바깥으로 三面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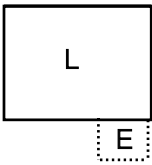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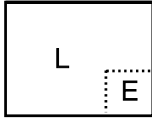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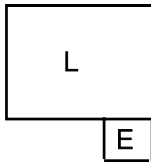

구분				
	외부노출형	내부노출형	외부돌출형	내부함입형
특징	· 벽체 구획 없이 돌출 지붕이 차양 역할을 하고, 출입문 전면에 배치되는 형.	· 주택 내부에 벽체 구획 없이 바닥과의 단차에 의해 공간이 구분되는 형.	· 벽체가 외부에 삼면 이상이 돌출되어 있고, 바닥과의 단차 및 현관 내부의 출입문에 의해 공간이 구분되는 형.	· 벽체가 내부에 이면 이상이 접해 있고, 바닥과의 단차 및 현관 내부 출입문에 의해 구분되는 형.
농가수	4	1	5	19
%	13.79	3.45	17.24	65.52

그림 2. 거실과 현관의 설치 형태 및 특징

돌출한 형태(17.2%, 5/29)이며, 넷째는, 주택의 전면 또는 측면에 면하여 별도의 공간 즉 현관과 거실과의 사이에 두꺼유리미서기문 등으로 구획되어 구성된 형태(65.5%, 19/29)이다.

'90년대 이후에는 점차 외부돌출형과 내부함입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외부돌출형은 계획 당시에는 신고면적의 제한으로 별도의 현관으로 구획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또는 사용검사후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축조 당시의 재료로 동일하게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재료로 설치한 경우도 있어 현관 부분이 주택 전체와 조화되지 않고 이질감을 주기도 한다.

2) 거실

재래농촌주택에서는 거실이란 명칭을 가진 室은 없었지만, 도시주거문화의 이입에 따라 새로운 주생활 방식이 농촌지역에 형성되었고, 주생활 패턴도 변화되어 가족 전체의 공동생활을 위한 거실이란 이름의 室이 농촌주택 내에서 주요한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거실의 위치는 중앙에 위치한 경우(48.3%, 14/29)와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경우(51.7%, 15/29)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거실이 중앙에 위치한 경우는 거실 이외의 실들이 거실의 양쪽으로 나뉘어 위치하게 되는데, 거실이 양쪽과 뒤쪽에 있는 個室의 통로로 겸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된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결점이 있으나 거실이 가족공동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거실과 個室의 관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거실이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경우는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의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接客時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유리하며, 또한 거실에서 전면과 측면의 양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거실은 현관과 연결되어 주택의 전면에 위치한다. 거실은 주택평면에서 독립된 실로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각 방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이자 연결공간의 성격이 짙다. 외부로 향하는 거실 전면에는 초기에는 네쪽미서기창이나 두꺼유리미서기창을 이중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폐창을 제외하고는 한 장의 복층유리를 거실 전면에 설치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것은 氣密性이 뛰어나 겨울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이중창보다는 유리할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전망을 제공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室들보다 家族共同生活空間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실내를 밝게 하기 위해, 그리고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轉移空間의 성격이 강하므로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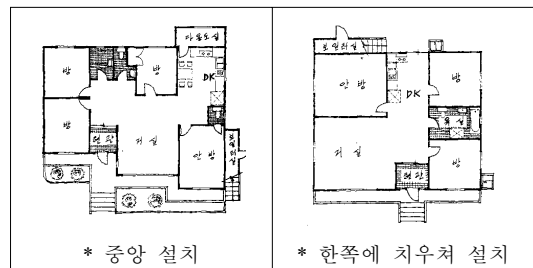


그림 3. 거실 설치 위치

접객장소로서 어른들은 과거에 주로 안방을 이용하였으나, 오늘날 대부분 거실에서 일상적인 손님접대를 하고 있으며(89.7%, 26/29), 일부는 겨울철에 거실의 난방을 하지 않을 경우라든지 거실 면적이 좁아 답답한 경우에는 안방(큰방)에서도 손님접대를 하는(10.3%, 3/29)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는 자신의 방인 공부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친척 등 하룻밤 이상 묵어 가는 손님의 접대는 안방보다는 작은방(27.6%, 8/29)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에 입식가구인 소파가 설치(37.9%, 11/29)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거실에 난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접객공간이 안방에서 거실 또

는 작은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여진다. 특히 작은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부만의 공간인 안방의 노출을 꺼려 가족수가 줄어들어 따라 남는 餘裕房에 손님을 모시고자 하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거실의 장식화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실에 시청각을 할 수 있는 TV, 오디오, 비디오 등을 설치한다든지, 소파 등 응접가구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보아 거실이 가족의 단란, 휴식, 오락, 어린이 놀이, 일상적인 손님접대 등의 공간으로 정착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식사실

거실 다음으로 가족공동생활공간의 중심적인 장소는 식사를 하는 식사실이다. 대부분 단독공간으로 구성하지 않고, 주방과 겹쳐서 식사실 겸 주방 즉 DK로 구성하거나 거실을 추가하여 LDK로 구성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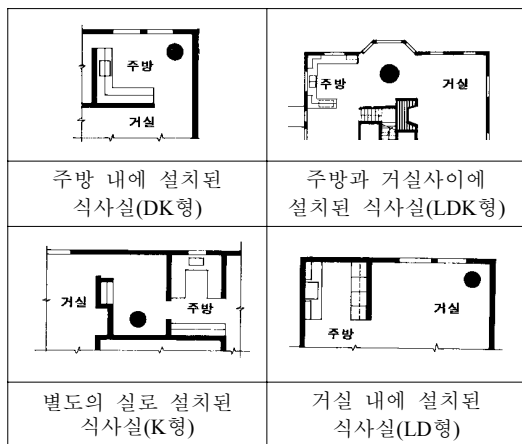


그림 4. 식사실의 설치 위치

식사실의 설치형태로 식사만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식사실이 구획된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식사실 겸 주방(DK) 또는 거실·식사실·주방(LDK)의 공유공간으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는 58.6%(17/29)<sup>4)</sup>이다. 그러나 식탁이 설치

되어 있어도 주방 또는 거실바닥에서 소반에 음식을 차려 놓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영역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면담조사시 식사 장소로는 DK에서 48.3%(14/29), 거실에서 37.9%(11/29), LDK에서 3.4%(1/29), 필요에 따라 DK 또는 거실에서 한다는 경우도 10.3%(3/29)로 나타나, 여름과 겨울 또는 농번기 등의 시기에 관계없이 입식가구인 식탁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DK에서, 식탁이 없을 경우에는 소반에 둘러앉아 DK나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운 여름에는 옥외에 설치된 平床이나 야외용 식탁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 식사 행위가 과거와 달리 DK나 LDK 또는 거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난방시설의 변화로 판단된다. 주방과 거실 바닥에도 안방과 같이 바닥 난방이 가능하게 되어 식탁을 이용하든지 주방 또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탁의 도입으로 입식형태의 식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 생활의 이입에 따른 住意識의 변화도 있겠지만 농가의 특성상 농사일에 바빠 매번 床을 별도로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부들이 편리함과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3.3 개인생활공간

1) 안방

거주자 호칭에 의한 안방(큰방)이 살림채 내의 거실과 나란히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조사대상 중 79.3%(23/29)였으며, 거실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20.7%(6/29)로 나타났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도 진입하는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안방이 전면에 거실과 나란히 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거 내에서 안방은 다른 室보다 커서 주거

4) 최장순·최찬환, 농촌개량주택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11, 125쪽에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28.0%, 7/25)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안방에는 침대를 갖추지 않고 자녀방에 만 침대를 갖추고 있는 농가는 34.5%(10/29)이고, 안방과 자녀방 모두 침대를 갖춘 농가는 17.2%(5/29)로 입식주거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안방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노부부만 거주하고 있을 경우(17.2%, 5/29)에는 당연히 안방을 사용하고 있으나, 노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34.5%, 10/29)에는 안방 사용자가 각각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부모 중 한 분만이 계실 경우(13.8%, 4/29)에는 결혼한 자녀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는 집안에서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설문조사시 안방을 사용하지 않는 결혼한 부부 대부분이 양친 모두가 생존하여 있는 한 집안에서 어른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안방을 노부모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집의 최고 연장자가 안방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65.5%(19/29)이고, 젊은 2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경우는 34.5%(10/29)인 것으로 나타나, 안방은 주택 내에서 위계적 상징성과 경제권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래농촌주택을 비롯한 개량형 농촌주택, 농촌개량주택에서는 TV가 주로 안방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최근의 주택에서는 TV설치 장소가 안방(37.9%, 11/29)이나 작은방(13.8%, 4/29)보다는 거실(79.3%, 23/29)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TV가 한 대일 경우(62.1%, 18/29), 家族團樂空間이 서서히 안방에서 거실로 옮겨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가 2대 있을 경우(37.9%, 11/29), 새로운 TV는 거실에, 현 TV는 주로 안방에 설치하는데 가끔은 자녀방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TV가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

던 가족이 이전과 달리 TV가 많아지므로 인하여 개인생활공간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이전에 TV는 가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세대간 분리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작은방

안방(큰방)이라고 부르는 방 이외의 나머지 작은방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공부방이거나 홀로 된 노부모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해서 출타하거나 하면 이 방들은 생활집기를 보관해두는 수납용 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방 옆에 있을 경우 주방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다용도실의 기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3.4 가사작업공간

1) 주방

설치 형태를 보면, 조리과 식사를 위한 공간이 하나의 구역에 병존하고 있는 DK형태(55.2%, 16/29)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조리만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K형태(41.4%, 12/29)이고, 거실과 식사실, 주방이 하나로 구획된 LDK 형태(3.4%, 1/29)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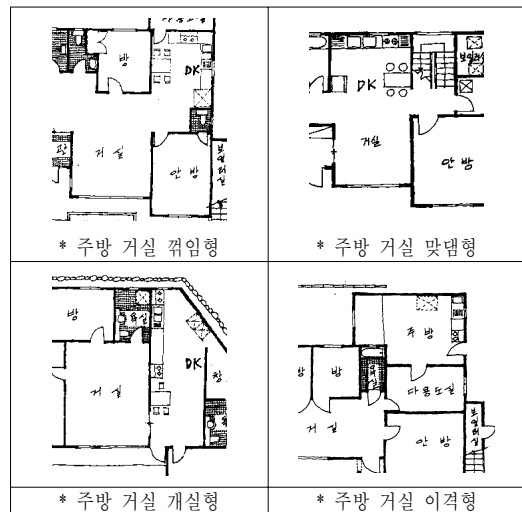


그림 5. 주방 설치 형태

5) 조사대상농가의 거실 평균면적은 21.81㎡이고, 안방 평균면적은 18.27㎡로 거실이 3.54㎡가 크나 실제로 거실에서 통로부분을 빼면 안방이 가장 넓다고 볼 수 있다.

주방을 중심으로 설치형태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방이 거실과 대각선 방향으로 꺾여 서로 마주 보이지 않도록 한 경우(69.0%, 20/29)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거실에서 외부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 주방 내에서 행해지는 작업들이나 주방용품들이 거실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일부 주택에서는 꺾여지는 부분에 외여닫이문이나 양미서기문을 설치하여 조리시 연기나 냄새가 거실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는, 주방과 거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17.2%, 5/29)로 주방과 식사실, 거실을 서로 보이게끔 설치한 것이다. 작은 면적에서 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방과 식사실 그리고 거실과의 동선을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주방이 지저분하게 보이기 쉽고, 공간에 안정성이 결여되어 식사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셋째로, 주방 거실이 個室形으로 주방과 거실이 서로 인접되어 있지만 서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10.3%, 3/29)로 거실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주방에서 조리시 발생하는 냄새나 음식찌꺼기의 냄새에 의해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넷째로, 주방 거실 離隔形(3.4%, 1/29)으로 이는 초기에 지어졌던 농촌 주택에서 주방의 면적이 너무 좁아 당초 주방을 다용도실 등 다른 용도로 쓰고 주택 뒤편에 주방을 증축한 경우로 거실에서의 시선 차단 효과와 조리시 발생하는 냄새나 음식찌꺼기의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다른 실을 통과해서 가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동선이 너무 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주방의 형태는 모두 입식이었으며, 주방에 갖추어진 싱크대는 ㄱ자형이 65.5% (19/29)이고, 一자형이 34.5%(10/29)로 ㄱ자형이나 一자형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ㄱ자형은 두 벽면을 이용하여 한쪽 면에 싱크를, 다

른 면에 레인지를 설치하면 一자형보다는 능률적이기 때문이며, 一자형은 작업대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어 동선의 혼란이 없고 작업내용도 한 눈에 볼 수 있어 노인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이고, 특히 두 가지 경우 모두 주방이 소규모이거나 細長한 경우에 알맞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거실과 주방 사이의 칸막이나 출입문 설치 유무에 있어서는 대개가 작은 면적이어서 거실과 주방 사이에 문이 없는 경우가 75.9%(22/29)로 더 많았으며,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24.1%(7/29)로 외여닫이문이나 양미서기문이 주를 이루었다.

## 2)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주택 내에서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사작업을 행하기 위한 장소로서 주로 세탁, 세탁물 건조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기·수도·보일러 등 주택 설비의 설치를 위한 장소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다용도실의 설치 형태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당초 계획시에 다용도실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주택 축조시에 반영한 경우(13.8%, 4/29)이고, 둘째는, 당초 계획시에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필요성을 인지하여 주방에 근접하여 증축한 경우(24.1%, 7/29)이며, 셋째는, 주방 뒷부분의 발코니와 돌출한 지붕처마 사이에 알루미늄 창틀을 설치하여 다용도실로 이용하는 경우(13.8%, 4/2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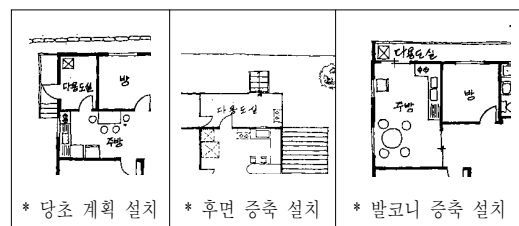


그림 6. 다용도실 설치 위치

이들 설치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초 계획에 반영하여 축조하였다기보다는 신고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벽체는 구획하지 않고 지붕 처마와 발코니, 계단 등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감사후에 벽체를 설치하여 다용도실로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용도실의 위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의 하나는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대부분 주방과 연계된 공간으로 10cm 정도의 단 차이를 두고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빨래를 하는 공간으로, 또는 농가에 큰 일이 있을 경우 취사나 설거지 등을 하는 주방의 보조공간으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치 위치는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주방 옆에 段差가 거의 없이 하나의 방으로 덧 붙여져 있고 이곳은 대부분 곡물 및 식기 등을 보관하는 수장공간으로서 사용하거나 잔치와 같은 큰 일을 치를 때 음식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용도실을 설치한 경우는 51.7%(15/29)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거주 인구가 노령화되어가고 세탁기의 용량도 점차 대형화되어감에 따라 또한 건축신고 면적이 현재보다 증가된다면 욕실에 세탁기를 설치하기보다는 계획시 다용도실 또는 별도의 세탁실을 반영하여 이곳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다용도실은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 3) 세탁실

조사대상농가 중 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별도의 세탁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없다. 세탁기가 설치된 장소로 50.0%(14/28)는 화장실에, 46.4%(13/28)는 다용도실에, 나머지 3.6%(1/28)는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따로 세탁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 농가가 없고, 또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은 물을 쉽게 給·排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빨래를 할 때 젊은이들은 편리성 때문에, 노인들은 힘에 부쳐서 세탁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노인들은 세탁기가 있어도 가족수가 적어 세탁물이 많지 않고, 세탁물에 흙이 많이 묻어 때가 잘 빠지지 않고 해서, 손빨래를 해오던 과거의 습관과 전기요금을 절약할 목적에서 실내에서 쪼그리고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화장실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마당의 수도에서도 손빨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가 노령화되어 감에 따라 세탁과 같은 힘든 일을 하기가 불편할 것이고, 농촌의 특성상 흙일을 많이 하는 관계로 세탁실을 주거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주거 내에 설치한다면, 농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更衣실 겸 세탁실을 실내바닥과 단차를 두어 현관 근처에 설치하든지, 주방에 인접된 다용도실을 현재의 면적보다 조금 크게 설치하여 다용도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부출입구 개념으로 계획하되 둘 다 옥내·외에서 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 4) 보일러실

보일러실의 설치 위치는 계단 밑을 벽체로 막아 사용하는 경우(34.5%, 10/29)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주택 후면이나 측면에 증축하여 보일러실을 만들어 설치하는 경우(31.0%, 9/29),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24.1%, 7/29), 다용도실(6.9%, 2/29)과 함께 보일러실을 설치한 경우(6.9%, 2/29) 順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계획 초기부터 보일러실을 만들어 설치한 농가는 소수(13.8%, 4/29)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보일러실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당초 도면에는 반영하지 않다가 짓는 도중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신고 사항이 30평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거부분의 필요면적을 먼저 계획한 후 나중에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설치 보일러의 종류로는 기름보일러가 86.2%(25/29), 나무보일러가 34.5%(10/29), 태양열온수기+기름보일러가 17.2%(5/29), 심야축열식전기보일러가 6.9%(2/29)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나무보

최 장 순, 이 상 범, 최 찬 환

일러6)와 심야축열식전기보일러7)를 설치한 농가는 전부 기름보일러를 갖고 있음에도 등유나 경유 값이 비싸 나무 또는 심야축열식전기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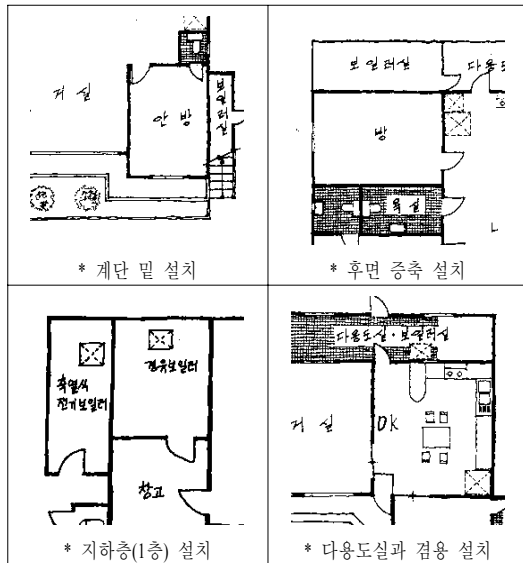


그림 7. 보일러설의 설치 위치

조사대상지역에서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를 중심으로 한 시설 보급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시설보급 증가에는 정부의 장기저리 시설융자 지원제도8)뿐만 아니라 태양열

- 6) 노곡면 윤상덕씨와 근덕철물건재 주인에 의하면, 기름보일러는 배관공사를 제외한 설치비용이 65만원 정도이고, 나무보일러는 80만원 정도로 기름보일러가 다소 싸지만, 기름보일러는 연료비용이 안방과 기실 정도만 난방을 하여 겨울을 나는데 최소 140만원 정도 들고, 나무보일러는 모든 방을 끌고 루 난방을 하고도 비용이 들지 않아 IMF 발생 이후 줄곧 사용한다고 함.
- 7) 노곡면 김원해씨에 의하면,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식전기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초기 투자비가 400만원 정도로 비싸지만 월 전기사용료가 10만원 정도이므로 기름보일러의 월 최소연료비 약 40만원보다 싸고 나무보일러와 같이 나무 땀감을 할 필요가 없어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적이므로 선택하였다고 함.
- 8) 함종철, 태양에너지 이용·보급 정책, 농촌생활과학, 1998. 6, 46쪽에 의하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급탕시설의 무공해성, 편리성 및 옥상 평슬래브 공간의 활용, 태양열온수기의 경제성 등 여러 이점에 대한 수요자의 호응도가 높아져 가고 있어 서서히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9).

### 3.5 가족위생공간

#### 1) 화장실

결터앉는 양변기를 대부분 농가가 설치(96.6%, 28/29)하였다. 이는 농촌개량주택과 비교해 보면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10), 결터앉는 양변기로 변화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주택외부에 변소를 설치한 농가들(51.7%, 15/29) 중 쪼그려 앉는 좌변기를 설치한 농가는 93.3%(14/15, 두 종류 모두 설치한 농가 포함)이고, 결터앉는 양변기를 설치한 농가도 26.7%(4/15, 두 종류 설치 농가 포함)로 좌변기를 설치한 농가가 아직까지는 많지만, 점차 결터앉는 양변기로 변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거주자들이 대부분 나이는 1세대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쪼그려 앉는 좌변기는 이용시 자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사용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결터앉는 양변기가 설치된 배경으로 보인다.

욕실과 변소 기능을 함께 갖춘, 즉 화장실을 갖춘 농가는 96.6%(28/29)이고, 안방에 샤워와 변소 기능을 갖춘, 즉 안방화장실을 갖춘 농가도 27.6%(8/29)로 젊은 부부가 기거하는 농가에서 주로 설치하고 있다. 별도로 옥외에 변소가 설치된 농가는 51.7%(15/29)로 농가 내부에 화장

90% 이내로 지원하며, 이자율은 연리 7%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함.

9)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97년 12월 기존의 기술개발 위주의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 측면을 보강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으로써 대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시설의 보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0) 최장순·최찬환, 앞의 책, 128쪽에 의하면 농촌개량주택에서 양변기를 설치한 농가는 16%에 불과하다.

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옥외 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마당이나 논밭에서 작업하다가 실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가 불편하다는 점, 변소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관습,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살림채 내에서 다른 실의 우선적 면적확대 요구, 정화조 설치비용의 과다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2) 욕실

농촌에서는 농작업을 많이 하므로 몸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위생상 욕실이 필요하다. 대부분 화장실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에서 목욕(96.6%, 28/29)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욕실을 따로 설치하여 분리시킨 경우(3.4%, 1/29)도 있다.

화장실에 욕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34.5%, 10/29)도 있지만 욕조가 설치된 경우(65.5%, 19/29)도 대부분 목욕시 욕조를 이용하기보다는 욕조 밖에서 몸을 씻거나 샤워기를 이용하여 샤워 정도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욕조는 목욕 이외의 용도 즉 물 저장, 빨래 등에 사용되어 목욕을 위한 용도만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른바 서양식과 한식의 入浴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기와 공간의 넓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3.6 수납공간

1) 창고

창고는 주생활방식의 변화와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초 살림채 내에 창고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생활용 수납공간은 거주 가족수의 감소로 남는 여유방을 창고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용 수납공간 창고도 현 면적에 만족한다(58.6%, 17/29)는 의견이 많았지만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41.4%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용 수납공간인 창고의 공간변화를 살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건물을 2층으로 만들어 1층 부분은 농기계 창고를 비롯한 각종 창고로 쓰고, 2층 부분은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13.8%, 4/29), 둘째는, 1층으로 축조하여 계단 또는 발코니 밑의 공간을 창틀로 외부 칸막이를 하여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48.3%, 14/29), 셋째는, 대지 안에 별동으로 부속사를 만들고 이 곳에 각종 농기구를 비롯한 물건을 수납하는 창고를 만드는 경우(51.7%, 15/29), 넷째는, 대지 바깥에 별동으로 부속사를 설치할 경우(17.2%, 5/29), 다섯째는, 신축시 기존 농가를 철거하지 않고 이를 창고로 쓰는 경우(6.9%, 2/29)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1층에 농산물, 농기구, 농자재, 농기계, 생활용품의 창고를 한곳으로 모아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오늘날 농촌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주거로 사용하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려야만 하는 불편이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1~1.5m 정도 올라와서 주거가 형성되므로 앞의 것보다 다소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은 덜 하지만 창고로 쓸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추가로 창고를 증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는 별동으로 창고를 증축하면서 살림채와 같은 형태 또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축조하므로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섯 번째의 경우는 기존의 농가를 철거하지 않고 창고 대신 사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풍광을 해치고 있다.

4. 결론

1) 대부분 농어촌표준설계도면과 주택건설업자의 모델도면을 참고로 하되 농민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택을 짓고 있으며, 형태 면에서 점차 평슬래브 지붕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부분 신축농가의 규모는 30평 이하인 건축신고 사항으로 농민의 경제력에 부담이 되는

설계비를 최대한 절약코자 하는 의도에서 우선 살림채를 짓고 나중에 부속사를 신고 증축하여 짓는 관계로 살림채와 부속사가 서로 이질적인 건물이 되는 경향이 있다.

3) 사용검사 이후 살림채 부분의 증축 면적은 평균 3.06평이고, 살림채 전체 평균면적은 32.58 평으로 축조 당시의 신고면적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창고를 비롯한 부속사의 증축 면적은 전체농가 평균으로 계산하면 10.41평으로 부속사 부분에 대한 증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고면적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농가는 특성상 흙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농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갱의실과 함께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실을 주거 내에 계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들 공간의 바닥은 실내 바닥보다는 낮게 만들고,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빨래건조를 위한 동선을 짧게 만들기 때문에 실내외의 출입이 행해지는 현관 근처에 설치하던가 또는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설치한 농가가 많으므로 다용도실 근처에 함께 계획하여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5) 대부분 난방 문제와 관련하여 신축시에 장소, 연료 구득의 용이성, 거주자의 연령,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에게 가장 경제적인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거주자들이 살아가면서 유지비가 적게 드는 보일러로 변환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이고, 건강한 거주자라면 나무보일러를, 힘없는 노인들이라면 축열식전기보일러 또는 기름보일러+태양열온수보일러를 권장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6) 시멘트블록담을 쌓아올린 농가가 많고,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유지관리가 편한 시멘트벽돌담이나 블록담으로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시멘트블록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농촌마을에 삭막한 느낌을 주는 시멘트벽돌담이나 블록담보다는 지역적 특성

을 살려 향토수목과 목재 또는 철재 웬스, 벽돌 등을 혼용한 담의 형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보다 아름다운 농촌마을과 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7) 창고는 내부공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산물, 농기구, 농기계, 농자재, 생활용품의 용도와 이용특성,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분리·통합하고, 작은 물품은 입체적인 수납설비를 이용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가의 농업생산과 생활특성, 그리고 살림채 및 마당, 진입로와의 동선을 고려하여 생활에 관련된 창고는 살림채와 가까운 곳에, 농기계와 같이 농작업에 관련된 창고는 외부진입이 용이한 곳에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1. 양희수, 한국농촌의 취락구조,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2. 최찬환·전경배, 건축법규해설, 세진사, 2000
3. 박경옥·유복희, 주민 자유의사에 의하여 최근 신축된 농가주택의 건축적 특성 및 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1
4. 최장순·최찬환, 농촌개량주택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11
5. 최장순, 영동지역 농촌주택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1. 2
6. 함종철, 태양에너지 이용·보급 정책, 농촌생활과학, 1998. 6